

마지스 2027 주제에 대한 설명

Living Hope, Igniting Peace
희망을 살며 평화의 불씨 피우기

1. 왜 희망인가?

1) **영적대화의 키워드:** 지난 주제 선정을 위한 영적대화에서 코어팀 멤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키워드가 “희망”이었다.

2) **희망이라는 단어가 청년들에게 주는 매력과 위로**

3) **마지스 2023 포르투갈 주제와의 연결성**

포르투갈이 주제로 삼은 “Creating a Hope-filled future”라는 주제의 연장선에서 나올 수 있다. 즉, 마지스 2023에서 희망의 세상 만들기를 주장했다면, 이제 마지스 2027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희망을 살아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4)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희망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가는 길(여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희망을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5) **WYD 주제와의 연결성**

진정한 희망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WYD의 주제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연결된다.

2. 왜 평화인가?

1) **분단과 평화: 한국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

전 세계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에서 열리는 WYD는 평화라는 주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22일에 교황청을 방문하여 2027년 서울 WYD 방한을 계기로 교황님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유흥식 추기경과 만남을 가졌는데, 유 추기경님은 이 자리에서 “교황청이 서울 개최를 결정할 때 ‘평화’를 핵심 주제로 삼았으며 한국이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가장 적합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다. 만약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평화라는 주제는 WYD에서 당연히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될 테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외국의 청년들은 분단국가인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평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2) **사회적 차원에 대한 강조**

지난 마지스 2023에서 포르투갈이 열심히 잘 준비하긴 했지만, 로마 총원에서는 “사회정의”와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미얀마, 전쟁난민 등을 떠올린다면, 세상의 평화는 여전히 절실하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평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마디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희망의 실제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예수회 제32차 총회(1975년)에서 “오늘의 예수회의 사명은 신앙에의 봉사이며 신앙에의 봉사는 정의의 구현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교령 4)라는 내용은 정의에 기초한 인간의 화해만이 신과의 화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희망 역시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세상의 평화와 떨어질 수 없지 않을까?

4) 평화는 성령의 열매

평화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갈라 5,22). 그러한 평화의 불씨를 피울 때 ‘ignite’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성령의 맥락 안에 있음을 확인해준다. “평화의 전갈은 협상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치가 모든 다양성을 조화시켜 준다는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230항).